

여수에 '동북아 오일허브' 만든다

1단계 3억2,000만불 투자...600만배럴 저장시설 갖춰

세계적 기업 등 참여 10월 법인 출범... 2012년 3월 가동

여수를 기점으로 한 '동북아 오일 허브'가 구축된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와 세계적 탱크터미널 업체, 트레이더 등이 참여하는 국내외 합작법인 방식으로 여수와 부산, 울산에 연계하는 모두 3천만 배럴 저장시설 규모의 '오일 허브'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1단계로 여수에 600만배럴 규모의 오일 허브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내외 합작법인이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합작법인은 이달 안에 합작투자 계약서 서명식을 갖고 10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설공사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전체 투자규모는 3억2천만달러로 이중 2억달러는 외자유치로 조달된다. 석유공사는 여수지사 유류부지 제2구역 합작법인의 지분 29%를 확보한다. 여수에 이어 울산에도 400만배럴 규모로 추진하며, 앞으로 총 3천만배럴 규모 시설을

▲오일 허브=석유제품 생산·공급·입출하·저장·중개·거래 등 기능을 수행하는 석유 물류활동 중심 거점이다. 미국(갈프연안) 유럽(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베르펜) 싱가포르(주룽)가 석유 실물 시장에서 세계 3대 오일 허브 기능을 하고 있다.

갖춘다는 복안이다. 지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보유한 북태평양 대권항로(대륙간 최단항로) 거점에 있으며 수심이 선박 접안에 유리하고 인근에 중국 동북부와 일본, 미국 서부지역 등 대규모 소비처를 보유하는 등 한·중·일 3국 중 입지조건이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5일 전남발전연구원 등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U대회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2015 U대회 유치 재도전 여부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 U대회 재도전 찬·반 팽팽

시민단체협 주최 토론회

"국제 도시 도약" Vs "지방 재정 부담"

타당성 검토 범시민 준비위 구성 제안도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에 재도전해야 한다."

"2013년 U대회 유치활동 예산공개는 물론 향후 대회 개최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광주 하계U대회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6명은 U대회 재도전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정형식 조선대경영대 교수는 "U대회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내외적으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재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신 광주시 도시마케팅 본부장은 "2013U대회 유치과정에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뒀고, 유치전략도 터득한 만큼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

드시 대회 유치가 성공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재선 광주시의원은 "유치실패 경험에서 금·부정적 효과를 냉철히 따져 재도전한다면 광주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편 입장에 선 패널들은 대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회 재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정희준 동아대사회체육학부 교수는 "U대회가 단기 흥행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몰라도 대회유치를 위한 정부예산이 전액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기훈 누리문화재단 사무처장은 "U대회 개최 이후에 대한 뚜렷한 대

안없이 광주시가 유치효과만을 부각하면 안된다"며 "2013대회 유치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재도전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2013대회 유치 예산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호 민노당 광주시당 사무처장도 "대회 유치의 양측이 조직과 예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 시간에 이기훈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대표와 시민 등이 포함된 국제대회 범시민 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고, 양철호 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시민대상 심층인터뷰, 여론조사 등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빠있는 미 쇠고기 오늘부터 판매

미국산 LA갈비 등 빠있는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하는대로 곧 시중에 일부 유통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육류수업업체 네트프에 따르면 네트프가 지난달 29일 들여온 빠있는 미국산 쇠고기 1.47t 중 LA갈비·갈비(Chuck Short Rib)·늑간살·양지 등 4개 부위 1.35t에 대한

검역증이 5일 발급됐다. 네트프는 갈비 부위 중심으로 2개 박스 분량(약 60kg)을 곧바로 인수해 정육점과 식당 등에 소량씩 판매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도 주문이 들어와 각각 15kg 가량씩을 납품했다고 네트프는 전했다.

LA갈비 등 검역증 발급

이종경 네트프 대표는 "이번에 들여온 1.47t에 대해서는 이미 주문을 다 받은 상태로 주로 정육점이나 식당 위주이며 일반인 주문도 있었다"며 "가격은 100g당 1천500~1천700원 선으로 돼지고기 삼겹살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60kg 정도를 미리

인수해 샘플 형식으로 소량씩 배달하고 나머지 물량은 정밀검역중인 안창살에 대한 검역증이 발급되는 이날 중순에 한꺼번에 인수, 여러 부위를 섞은 세트로 판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네트프는 또한 추석 전에 배편으로 180t 가량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며 네트프 외에도 이네트와 제니스, 에이미트 등 다른 육류 수입업체들도 갈비 등 빠있는 미 쇠고기를 이달 중으로 수입,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다. /연습스

빛다만평

- 김중두

역시나 선물은 '립서비스' 뿐

'금강산 사태' 장기화 불가피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방북 성과없이 귀환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이번 방북에서 빈손으로 귀환함에 따라 금강산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윤만준 사장은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추모식에 참석차 전날 오후 금강산을 방문해 이날 오후 귀환했으나 방북중 북측과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말해 금강산 관광객 피해 사망사고로 빚어진 관광중단 사태 해결에 아무런 진척이 없음을 시사했다. 윤 사장은 4일 방북길에 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만 치르고 올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 군 대변인이 불필요한 남측 인원의 추방 등을 언급한 상황이라 북측과 모종의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 사장은 이번 방북에서 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을 갖는 등 자체 행사만 치르고 돌아오며 따라 북측이 아직까지는 남측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국정부 또한 북측의 사과와 더불어 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금강산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연습스

상반기 실질무역 손실 55조

국제 원자재값 급등 여파... 사상 최대 규모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지난 상반기 실질무역 손실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하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액'은 지난 상반기에 54조9천27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난 2000년의 교역조건이 유지됐다면 54조9천여원을 더 벌어들이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금액은 2000년 가격으로 환산된 것이다. 실질 무역손실은 상반기 기준으로 2004년 12조634억원, 2005년 20조

실질무역손실 추이

교역조건 변화, 상반기 기준 14년 14억 원

연도	실질무역손실 추이 (14년 14억 원 기준)
2004	-12,963.4
2005	-20,084.7
2006	-34,481.1
2007	-37,718.3
2008년 1~6월	-54,927.1

반기 무역손실 및 수출입 전망'에서 올 하반기에 수출 호조로 27억 달러의 흑자를 내겠지만 고유가로 인한 상반기 적자 누적으로 올해 총 35억 달러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습스

光州日報 廣告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일·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 (주)광주일보사

• 직통: (062)227-9600
• FAX: (062)227-9500

산행 안내

광고는 11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급매

원도읍내 6차로 상행
토지 11,787㎡ 등 자포함 7억
월 7~8백만수 투자최고요지

011-866-3361

입찰 공고

1. 명찰명: 대불산단 표준공원관리용내 식당 및 매점 임대
2. 임대기간: 08. 9. 1 ~ 08. 12. 31 (계약기간후 1년 단위 재계약가능)

3. 임대면적: 288.6㎡

호번	용도	승인면적	전용	공용
102-103	식당·매점	288.65	216.86	41.79

4. 기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단위: 원/년, 부가세 별도)

호번	용도	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102-103	식당·매점	10,518,200	1,262,190	5,200,000

5. 입찰주최방법 및 최소우편입찰 불가

구분	입찰신청(서류제출) 마감	입찰일시	계약일시
일시	08. 8. 13(수) 16:00	08. 8. 14(목) 11:00	08. 8. 22까지
장소	대불지사	대불지사 회의실	대불지사

6. 입찰방식: 경매입찰

7. 입찰 참가자격: 관계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8. 입찰참가신청서류

9. 낙찰자 결정방법: 기준임대료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일에서 제2조에 의함.

11. 입찰서류: 입찰일에서 제6조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신청서 제출내역서 등 제인원함을 완전하고 신속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신속하지 않은 이유로 입찰서 혹은 계약체결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서류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ic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계약·입찰서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대불지사(☎ 061-463-0193, 팩 061-463-0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불지사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신희동 내불리 339-3)

2008년 8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쉽,설득력 향상과정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2008년 2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각반 50명 선착순

대상: 주부, 직장인, 일반 남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각종행사 사회진행 및 리더십으로 활동할 분, 발표력이나 말을 잘 하고 싶은 분

3. 강의요일 및 시간

- 주간 (매주 화, 금요일)
14:00~16:00
- 야간 (매주 금요일)
19:00~21:00

4. 교육기간

2008년 9월 16일~12월 29일

5. 교육과정

대중 앞에서 공포증 해소 및 여러사람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행사 사회진행 및 브리핑과 대중연설 기법,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향상 교육, 이론40% 실기60% 교육훈련, 이미지제 높이는 실기 기술화법, 리더십 설득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훈련, 실습을 통한 토크쇼를 특색으로 연출함, 이미지 스피치의 모든 고급질 대학원, 각종 학교장, 성취 및 연설은 남쪽요령

6. 원서교부 및 등록시간

• 등록기간
2008년 8월 4일(월)~9월 5일(금)
• 등록시간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eb2.gwangju.ac.kr/~sce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 H-P 010-5692-9998

임대

임대 층	권장 업종
지하 2층 (구.삼복서점)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및 헬스클럽
지상 4, 7층 일부	병의원, 사무실

▶ 위치: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 연락처: 에이취에이취개발(주)
☎ (062)412-6230